

나를 모방하라

고린도 전서 4:14-21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제 두 손자는 스파이더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손자들은 옷 혹은 영웅적 행동으로 그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는 4살짜리 아이의 상상력을 위한 영웅이지, 평생의 영웅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대조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길은 교만, 지위 추구, 자기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길은 자기희생, 다른 사람 생각,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모방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의 지혜와 권능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길입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입니까?

10년 전 윌링던에 왔을 때 어머니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 파킨슨병과 치매로 고생했습니다. 5년 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모범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아무리 해도 모자랐습니다. 오늘날 아내와 아이들이 저에게 "할아버지처럼 될수 있어?"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제가 손목에서 거미줄 액체를 쓰는 법을 터득했지만, 스파이더맨처럼 될지 묻지 않습니다. 😊 바울은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인 1-4장을 자신을 본받으라는 부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어떤 것들이요?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문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고린도와 더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은 정체성, 승인, 인정(외적)을 위해 고린도의 영웅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님(내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은 고린도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잃고 소외되었고, 심지어 배척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받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부당할 만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고후 2:4). 그는 그들의 생각, 가치관, 행동 중 일부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할 때 이것은 섬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들을 싫어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는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하다"라는 단어는 "도발하거나 비통하게 만들지 않고 시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충고가 포함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의 심각성과 왜곡에 대해 경고하여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기초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의 영웅들로부터 긍정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해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다면, 부끄럽게 여기거나 낙담시키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어떻게 시정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 자녀가 다르고 시정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아이를 격려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격려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인도자가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인도자"라는 단어는 주인의 자녀들의 삶을 감독하고, 그들이 학교에 다니고, 먹고, 도덕적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보호받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신뢰할 수 있는 종(노예)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인도자"는 아마도 고린도의 경쟁적인 파벌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인도자가 있어도 - "수많은"이라는 단어는 "만"입니다 - 영적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인도자, 트레이너, 강사, 인생 코치, 설교자, 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소셜 미디어에 수많은 인도자가 있어도 실제로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행 18장). 흥미롭게도 바울은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영적 부성과 영적 자녀에 대한 애정에 대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4:19; 살전 2:7, 11-12). 그의 영적 부성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남자와 여자가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 좋은 기초를 놓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의 관심사와 이 서신을 쓸 때 교회에 대한 관심사는 그들이 복음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예수님의 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전술로 꾸짖는 엄격한 감독자(징계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영적 아버지로서 그는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잡고, 세워줍니다. 그는 "나는 너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거만한 자기에 주의자인가요?

1.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본받으라(모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방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μιμούμαι)에서 영어 단어 "흉내 내다"가 유래했습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델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방식을 통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 안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매뉴얼과도 같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고 자녀와 같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권력을 추구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동기부여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모방하도록 격려했는지 묻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 - 지위 추구를 포기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길(자신을 죽이는 것) - 고린도 영

웅들의 세상적인 지혜로운 방식에 저항하고 대신 약함, 두려움, 떨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 분열보다는 연합을 위해 일하십시오 - 하나님을 위해 바보가 되기 위해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 학대에 축복으로, 중상모략에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박해에 겸손한 인내로 대응하십시오 - 자신의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인으로 여기십시오 -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초와 영원을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 - 하나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삶의 롤 모델에 대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삶이 예수의 복음에 부합하는 한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윌링던 교회 가족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안 하시겠습니까? 캐나다 복음주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가능하다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우리는 영적 건강보다 사회적, 경제적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불완전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신자와 서로에게 복음에 따라 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2주마다 애벗스포드까지 운전해서(그런데 저는 아직 1번 고속도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97세인 제 육적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가 저에게 본보기이자 영감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27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이민자 부모님이 이곳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조부모님은 전쟁과 기근을 피해 난민으로 왔고, 입던 옷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나라의 모든 편의 시설은 그들에게서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지위와 가족이 캐나다 정부에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때 상황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 캐나다인의 50%가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는 9학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제대로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키스를 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손주들이 왜 모두 병원에 그를 찾아와고 싶어 할까요). 제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80대 후반까지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을 사랑하시고 후하게 베푸십니다.

여러 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의 종, 교회 가족,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종종 아버지가 저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면 매우 감사하십시오. 없다면 교회

가족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과 삶의 결정,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십시오.

2.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윌링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롤 모델이었지만, 그는 종종 부재했습니다.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킵니다.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제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자는 주로 가르침이나 편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가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구현하는 실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순회 설교자 팀이 아니라 지역 장로, 목사,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둘째, 제자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교리("제가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대로")와 실천("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길")의 조합입니다. 올바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신학은 옳지만 행동은 너무 틀렸어"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나 윌링던 교회 가족에게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할 사치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그는 올바른 교리(정통)로 시작하여 올바른 행동(정통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제 행동이 크게 어긋난다면 제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신학에서 나오기 때 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교회와 가족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고린도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에서 벗어났기 때문 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매우 사랑하고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20-21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를 보낸 것도 당연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고린도 신자들이 태어났을 때였 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분만을 준비하기 위해 산전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있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깊이 숨을 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경우에는 출산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많은 노력

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인격, 지혜, 인내, 겸손 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칭찬할만한 일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2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4대(영적 아버지, 영적 자녀, 손자, 증손자)에 대해 말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인들에게 모든 교회 가족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법과 그의 방식에 따라 사는 법을 상기시켰습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님의 방식을 본보기로 보여 주었을까요? 저는 두 명의 Rob을 떠올립니다. 상파울루의 사업가인 로베르토와 선교사 목사인 롭 페너 목사입니다. 이 두 분에게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인, 사업가, 전문가, 웨이터, 도어맨, 택시 운전사, 사무원, 거리 청소부 등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았고,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으니

18절을 더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는 듯이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교만하여졌느니라"(고전 4:6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으로 특징지어집니다(고전 8:1). 교만은 고린도에서 가장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린도와 같고 그 자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유창하고 통찰력 있고 풍부하다고 믿습니다(1:17; 2:1-5 참조).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언어는 그들의 오만함이 굳어진 자세, 즉 삶의 방식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교만함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인간의 지혜와 힘(웅변이나 수사적 기술)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2:4-5). "교만한" 자들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간적 지혜가 선포됨에 따라 교회 안에 영적 오만함,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 경쟁, 계급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 헛된 바람.

3. 우리는 영적 능력보다 말이 더 많은가요?

오늘날의 평행 현실은 관용, 수용, 포용의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과 더 비슷하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결국 모든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관용의 과장된 말"을 하고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파괴합니다.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과장된" 복음은 실제로 믿음을 해체하고 교회를 비웁니다.

바울은 말의 전쟁(영적인 쓰레기 이야기)을 찾고 있지 않았고 신성한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아래 있는 사람, 공동체 또는 영역입니다. 그 왕국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삶과 사역에서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태어나고(요 3:3-8),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그의 말씀, 그의 진리, 그의 길)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됩니다(고후 3:17-18; 10:3-4).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왕국은 완전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교회)를 위해 돌아오실 때 충만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롬 14:17; 골 1:13; 4:11)이며 아직은 아니고 미래입니다(롬 6:9, 10; 15:24, 50). 이 시대에 우리는 약함과 함께 살지만, 그 약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왕국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왕국은 공허한 말, 즉 신학적 슬로건, 쉬운 건강과 부의 처방, 진보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제 청소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건축가였고, 말이 유창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룹에는 서로 다른 삶의 상황,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양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십대 시절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저는 눈 수술을 위해 병원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방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영적인 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질문으로 끝맺습니다.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나는 징계를 해야 하는 아버지로서 오는가, 아니면 온유한 정신으로 오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징계와 온유함은 둘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서신과 디모데의 말을 경청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고도 진리와 의로움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회개로 부를 수 있을까요? "매"는 엄격한 징계의 이미지였습니다. 바울이 왜 엄격한 징계에 대해 말했을까요?

고린도의 상황이 더이상 나쁠수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 그는 교회에 존재하는 근친상간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들이 그 행위를 해도 어떤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용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 주님의 만찬에서의 계층 분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결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정신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하셨습니다(마태복음 11:29; 고린도후서 10:1 참조). 온유함은 "절제된 인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요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훈계하고(14절), 권고하고(16절), 상기시키고(17절), 징계합니다(18-21절). 복음은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절과 징계가 자신의 회개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은 칼린 바인하우어 목사는 저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칼린 목사님, 큰일을 제대로 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는 목사였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칼린 목사의 아버지는 그가 13살 때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칼린은 좋은 아버지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에게 본보기가 될 남자와 여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복음에 근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칼린 목사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결코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격려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남자와 여자를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활 방식으로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